독일학연구 제18호 (2002. 12) pp 129-142 129

# 루터 종교개혁의 원동력

이 영 수*

## Ⅰ. 들어가는 말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유럽의 하늘을 흔들기 시작한 것은 그 이전에 몇 년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혼자 만의 고민과 나름대로의 긴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다. 그가 전작 민중들 앞에 나서기 전에 그가 깨달았다고 믿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본 논문은 루터가 깨달은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예수가 공생애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안내하는 '하늘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선포를 한다. 그가 우주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민중에게로 나선 것처럼 루터도 자신의 깨달음 없이 한순간 욱하는 마음에 민중 선동에 나선 것이 결코 아니다. 그의 기나긴 깨달음의 여정이 어느 순간 불같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신은 줄(與) 뿐이지 은총을 팔던가 사지를 않는다. 따라서 신의 은총은 돈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루터의 신념을 뒷받침한 것은 11세기나 앞선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의 저서였다. 구원받는 자는 "그 공적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매개자(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 선택된다. 즉 자유로운 은혜에 의해 그들의 정의를 인정받는다."[1] 이 글은 어둠을 헤매는 루터의 영혼에 빛을 던져 주었으며 희망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신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다.

루터가 더욱 연구를 쌓아감에 따라 다른 말이 그의 대담한 신념을 받쳐주게 되었다. 그것은 "메타노이아(metanoia)"라는 그리스어이며 라틴어 불가타 성서에서 "포에니텐티아(poenitentia)라고 번역된 말이다. 이것이 루터 신학의 출발점이다. 이제 그

* 동아대학교 유럽어문학부 독문과 교수

1) The Reformation: Time-Life. (Edith Simon) 한국일보. 타임라이프. 1991. S. 38

과정을 추적해보자.

## II. 교회에 대한 불만

바이마르 근교에 있는 고성(古城) 바르트부르크(Wartburg)는 공민권을 박탈당한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1년 가까이 여기서 은거했다. 그 사이에 그가 시작한 종교 개혁 운동은 일대 세력으로 팽창하여 기독교의 세계를 변모시켜 나갔다. 유럽의 하늘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루터 시대의 교회는 명확한 영토는 갖지 않았으나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 전 유럽이 기독교국가였다. 이 국가에는 교황이라는 군주가 있고 고위 성직자라는 제후가 있었으며 서구(西歐)의 모든 기독교국가는 그 신하였다. 종교회의라는 입법부가 있고 교회법이라는 헌법이 있었으며 교황청이 법원과 재무부를 겸하고 있었다. 교회는 전쟁도 하고 조약도 체결하며 세금도 징수하는 국가였다. 언어와 지역이 달라도 모두가 동일 종교를 믿는 기독교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광범위한 권력은 오랜 동안의 전통에 바탕하고 성문법의 걷치레를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권력에 대항하는 자가 없던 것은 아니다. 각국의 국왕들은 각자의 권한이나 재원(財源)에 교회의 손이 미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학자들은 교의해석(敎義解釋)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 모든 계층(階層)의 사람들이 세속인 계급(世俗人階級)에게 부과되는 세금, 즉 10분의 1세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불평은 늘 있는 일이었다.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은 많았으나 뭐니 뭐니해도 가장 심한 불만이 쏠린 것은 교회의 재산이었다. 그럼에도 교회는 국왕들로부터 해마다 공납금을 거두고 있었다. 사교(司敎, 사제)들도 취임할 때는 교회에 취임료를 바쳐야 했다. 교회당의 건립, 내부장식, 결인구제, 전쟁, 그 밖의 무수한 일을 구실 삼아 교회는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교회의 괜찮은 수입원으로 사면장(赦免狀)이 있었다. 후에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것이다. 사면장은 죄에 대한 벌을 면죄하는 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교회에 죄의 값으로 돈을 기부하는 것이다.

신의용서는 고해, 참회, 속죄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다. 중세에 있어서의 속죄란 7년 동안 빵과 물밖에 먹지 않고 지낸다든가 엄한 수행을 뜻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백 년 지나는 동안에 엄한 수행 대신 사면장이 그것을 대행하게 되었고 돈만 내면 속죄의 수도(修道)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얼핏 노골적인 금전만능주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원래는 죄에 대한 체형은 돈의 지불, 즉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독일 법사상에서 나온 것이었다.[2] 그런데 돈과 사면이 얽힘으로써 악용되기에 이르렀다. 단순한 사람들은 돈만 주면 사람들이 곧잘 눈감아 주듯이 신도 틀림없이 묵인해 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사면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나온 것이었는데 루터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내주는 관행이 되어 버렸다. 신자들은, 루터 자신도 로마에 갔을 때 그랬듯이, 특별한 의식에 출석 하든가 성소(聖所)를 참배 하든가 성유물(聖遺物)을 예배할 때 특전을 얻기 위하여 희사하고 대신 사면의 증명서를 받는 일이 흔히 있었다. 교회의 공식 교의에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민중은 사면을 구원의 보증이라 믿었던 것이다.

## III. 개혁론자의 세 그룹

교회는 교회 자체의 결함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갭"을 알고 있었다. 교회는 교의 등의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정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교회는 내부의 손으로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단호히 주장하며 로마 이외의 권력이 개혁의 손을 뻗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혁을 지지하는 자는 대략 세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신적인 개혁론자'로서 그들은 교회의 속화(俗化)를 개탄하며 경건과 청빈을 중심으로 한 생활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종교회의의 제창론자'로서 그들은 전 기독교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종교회의에 의해 교회가 제도면에서 개혁되기를 바랐다. 셋째는 '인문주의자'들로서 그들은 성서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기만 하면 초기의 교회가 가졌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3]

---

2) ebenda. S. 35

첫째 그룹인 정신적 개혁론자는 직접 민중을 향해 설법하는 설교사들이었다. 사회는 부패하고 국가의 시책도 믿을 것이 못된다. 신에의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 정신적 개혁론자는 일반에게는 폐 널리 받아들여졌으나 정작 중요한 교회로부터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정통적인 가르침을 역설하는 자는 로마로부터 묵인되었으나 민중 사이에 불안과 불복종을 고취하는 자는 이단자로서 견책을 받았다.

다음의 종교회의파는 주로 세속과 성직에 있는 정치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로마를 향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파에 속하는 국왕이나 대신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로마의 국정 간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정치적으로 사교(사제)를 자유로이 임명하는 것, 로마로 보내는 금은(金銀)의 부담을 면제받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었다. 또 단순한 민족감정에서 나온 질투심에서 교황청이 이탈리아인만으로 구성된 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회 의회로서의 종교회의가 무절제한 교황의 행동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교회 내에서의 종교회의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세속정부(世俗政府) 내의 의회운동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적 의회주의보다 급진적일 수는 없었다. 분명히 그때까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던 종교회의는 영향력이 약했고 정치적 압력 앞에 그들이 굴복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사교나 추기경들은 국왕의 각료로서 세속정부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 동시에 양쪽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난처한 처지에 있었다. 군주(君主)측은 그 약점을 기화로 종교회의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했다. 바로 그 때문에 교황 측에서는 종교회의 운동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종교개혁론자의 세 번째 그룹은 인문주의자들로서 그들은 국가적이라기보다 초국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회의파와 달랐다. 물론 그들 중에도 종교회의파 그룹도 일부 있었다. 또 신의 교시(敎示)보다도 이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건(물론 그들도 도덕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었다)을 주창하는 설교사들과도 달랐다.

특히 인문주의자들은 무지(無知)를 개탄하며 교양인의 지력(知力)을 예찬했다. 그들은 교의를 문자 그대로라기보다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성사(聖事 sacrament)라든가

---

3) ebenda. S. 36

은총에 대한 토론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량하며 교육에 의해 더욱 더 개선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만일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그 윤리수준도 그만큼 높아져 그것이 사회와 교회의 이익이 된다는 점이 그들의 신념이었다.

인문주의 운동은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발단,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북방으로 전달되었다. 파리 대학의 신학자이자 고전학자였던 르페브르 데타플(Lefevre Détaples)도 그런 역할을 한 학자였다. 그는 신약성서를 자국어( 프랑스어)로 옮긴 초기 번역자의 한 사람이며 성서를 읽게 하기 위해 문맹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는 루터의 생각 중 어떤 것을 5년쯤 전에 발표한 것으로 해서 프랑스 종교개혁의 원로로서 유명하지만, 대개의 지식인이나 거의 모든 인문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그도 최후에는 루터와 결별했다.

인문주의자 중에서는 에라스무스(Erasmus)가 가장 유명했다. 그는 편력(遍歷)을 좋아하는 학자였다. 1466년경 네델란드 로테르담에서 성당구 사제(聖堂區 司祭)의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16세기의 사람으로서는 가장 세련된 인물로 성장하여 유럽의 도처에서 교황, 개혁론자, 국왕, 그리고 학자가 그의 의견을 구했다.[4] 16세기 사람으로서 에라스무스만큼 개혁의 필요를 통감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는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루터보다도 훨씬 전에 에라스무스는 교황권이 속세사(俗世事)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데에 이론(異論)을 내세우고, 단식, 성유물의 숭배, 독신주의, 사면장의 판매, 순례, 고해, 이단자에 대한 화형, 성자에의 기도 등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교의의 개변(改變)은 "되도록 적게 하고 그 밖의 의견은 자유로이 발표케 할 것"[5]을 역설한 점에서는 그는 루터를 훨씬 더 앞서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교육에 의해 세계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농민의 아들들이 모두 밭갈이를 하면서 찬송가나 휘파람을 불고 있으면 된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는 조용히 종교가 변화되기만을 바랜 사람이지 엄청난 변혁을 요구한 사람은 아니다. 에라스무스는 어떤 지적 엘리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혁명의 소동은 포악한 군주의 압정(壓政)보다도 처치 곤란하다. 따라서 민중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싶지는 않다."[6] 그는 혁명적인 정신을 갖고는 있었으나 행동은 그다지 혁명적이 아

4) Stefan Zweig: Triumph und Tragik des Erasmus von Rotterdam. Fischer 1981. S. 30
5) Edith Simon: ebenda. S. 37

니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루터처럼 세계를 뒤흔드는 사태는 일으키지 않았다.

## IV. 루터의 깨달음

루터 자신은 오랫동안 종교의 개혁문제에는 거의 아무런 관심도 표시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벅찬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텐베르크의 사제로서 교구 사람들의 고해를 듣고 그들의 죄의식(罪意識)이 얼마나 크며 벌을 피하기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알고 루터는 낙심했다. 게다가 학계에서의 교제가 넓어감에 따라 그의 시야도 넓어갔다. 점차 구원(救援)에 대한 그의 탐구심과 개혁에 관한 토론이 그의 심중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혁명의욕으로 싹텄다.

루터를 괴롭히던 번뇌는 어느 날 극적으로 해결되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에 대비하여 성서와 씨름하고 있던 루터는 갈망하던 희답의 열쇠를 「로마서(書)」 속에서 발견했다. 그를 그때까지 절망에로 내몰고 있던 "정의(正義)"라든가 "의(義)"를 뜻하는 말, 즉 "유스티티아(justitia)" 그 자체가 해결에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열쇠였던 것이다.[7]

루터는 연옥(煉獄)에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영겁(永劫)의 징벌을 신의 의(義)와 관련시켜 생각해 왔었다. 비텐베르크에서 연구하던 중 성 바울의 한 구절 "올바른 자는 믿음으로 산다(The just shall live by faith.)"[8]에 부닥쳤을 때 불현듯 그 말이 지니는 새로운 뜻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이 깨달음은 돈오(頓悟)인가? 그의 깨달음,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마침내 신은 나를 어여삐 여기셨다. 신의 의(義)란 신의 은혜이며, 은총이고 이 은혜로 하여 올바른 사람은 영원히 산다. 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9]라고 루터는 썼다.

다시 말하면 신의 정의(正義)는 징벌을 내린다는 섭리(攝理)가 아니라 신의 자비

6) Stefan Zweig: ebenda. S. 133
7) 이영수: 『루터의 신앙과 투쟁』 이문사. S. 85
8) ebenda.
9) ebenda.

에 기초하고 있다. 신의 의(義)는 신의 은총이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루터가 삶에 절망했다"라고 번역된 말이다. 메타노이아는 참회라기보다 개심을 뜻한다. "참회(penitence)"의 개념에는 죄악, 범죄, 벌 등 모든 강박관념이 얽혀 있다. 그러나 "메타노이아"를 정확히 번역하면 "회심(回心)"이 된다. 루터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간이 자발적인 선의(善意)로 신과 마주하는 정신상태를 뜻하고 있었다. 고해의 성사란 복수적(復讐的)인 신이 부여하는 보복이 아니라 영혼을 회생(回生)시키는 신의 은총이라고 루터는 느꼈다. 영혼의 회생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영혼의 개심은 신의 은총으로 주어지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보상받는 그 무엇이 아니다.[10]

이것이 루터 신학의 출발점이었다. 그가 신의 믿음을 영혼의 회생이라는 관점을 그것을 강의에 채택했을 때 새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루터는 사실상 신학의 오묘한 경지로 향해 혁명적이고도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면죄부 따위의 공적으로 개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이다. 루터 자신은 인문주의자는 아니었으나 인문주의 사상은 학원생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의 인간관은 경건하고 북방적이었으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견해와 비슷한 데도 많았다.

루터는 일찍이 자기 자신을 들볶던 때와 다름없는 정력으로 자기 사상의 보급에 힘썼다. 그의 학설을 들으려는 자가 늘었고 비텐베르크 대학도 크게 성장했다. 루터는 꾸준히 명성을 획득해 나갔다.

의(義)와 회개(悔改)의 개념을 문제로 삼음으로써 루터는 필연적으로 다른 분야에도 깊이 파고들게 되어 곧 다른 문제도 이야기하게 되었다. 성자숭배(聖者崇拜)에 대해서, 그리고 사면장 판매에 대해서 그는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 V. 공개 토론

사면장에 대해서는 루터 이외의 사람들도 이미 관심을 나타냈고 1500년대 초의 이른바 성 베드로의 사면장에 의해 문제는 확대되었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죽기 훨씬

10) ebenda.

전에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새 바실리카 회관을 건립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이 공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면한다는 교서를 공포하여 건설비를 기부받았다. 그의 뒤를 이은 교황 레오 10세(Leo X)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사면 교서를 공포한다. 그는 온 세계에 면죄부 판매원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탁발승들이었으며 모든 죄를 용서하는 교황의 보증서를 팔기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문전행상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맞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에게 해답이 왔다. 그런 시간이 어떻게 왔는가는 그가 죽기 1년 전 라틴어로 쓴 어떤 책의 서문에 기록해 두고 있다.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기뻤던가! 기독교 역사에서 고백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그의 글이다. 이 글은 훌륭한 기독교인의 신과의 만남을 서술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의 정원에서 묘사한 글이나 파스칼이 1654년 11월 그의 유명한 『수상록』에서 보는 듯한 글과 유사하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나무랄 데 없는 승려로 살아왔지만 양심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나는 신 앞에서 죄인이요, 나의 선행으로 신과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죄인을 벌주는 정의의 신을 내가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신성모독에서가 아니라 몹시 역겨운 불만으로 나는 신에 대해 분노한다. 그래서 말한다. 원죄로 영원히 비참해진 죄인들이 다시 10계 때문에 답답해졌다. 그런데 복음이란 이름으로 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신의 정의와 신의 분노를 보여준다. '말씀'이 나를 계속 묶는다. 나 자신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날뛰게 되고, 또 바울 사도가 행했던 그 자리를 얻으려고 애를 쓴다. 나 자신 바울 선생이 무슨 일을 하고 싶었던지 그것도 확실히 알고 싶다.

신이 긍휼히 여길 때까지 또 내가 밤낮 없이 고민하여 다음 말을 이해할 때까지 나는 노력했다. 다시 말해 신의 정의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개방되어 있다. 신의 정당성을 확보한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신의 정의를 이해했다. 다시 말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복음으로 신의 정의가 드러나고 신앙으로 신이 자신의 정당성을 보여준다는 뜻이다. 의로운 자는 신앙으로 산다는(der Gerechte soll aus Glauben leben) 것이다. 이 영감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

고 내가 이렇게 하여 열려진 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때부터 성경은 전혀 다른 눈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생각이 난 김에 성경을 급히 살펴보았다. 다른 말로 표현된 비유를 비교해 보았다. 즉 신의 업적이란 신이 우리에게 직접 행한 일이요, 신의 힘이란 신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요, 신의 지혜란 그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신의 구원, 신의 영광도 모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11)

그리고 옛날에 내가 신의 정의란 말을 아무리 싫어했다 해도 이제 나는 이 멋진 말을 몹시 아끼게 되었고 바울이 나타나는 곳마다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루터가 있었던 작업실은 바로 이런 깨달음의 장소였고 또 그곳이 비텐베르크의 검은 수도원 탑 속에 있었으므로 우리는 루터의 이 시간을 일컬어 '다락방 속의 깨달음'이라 한다. 그가 성경이해를 새롭게 하여 깨달은 바는 자기의 강의에 그대로 반영되고 찬송가 속에서도 나타났다. 소위 말하는 붓다(깨달음)의 그때가 1512년 겨울학기 아니면 1513년 초봄으로 생각된다. 이 무렵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새 시대의 새벽이라 하겠다. '다락방 속의 깨달음'이 없었더라면 보름스(Worms)의 제국의회도 저 유명한 95개 조항의 선포도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신을 찾으려는 개인의 투쟁으로 새 시대의 새벽종이 울렸다. 천주교 교회의 새봄이 시작된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러한 새로운 견해에 이르기 위한 몇 년간의 조용한 시간이 있고 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루터는 이름 없는 일반 수도사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생각으로 공개토론장에 나가서 「갈라디아서」 또는 「로마서」에 대한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개벽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517년까지 아직 몇 년간 시간이 남아 있었다. 단지 신학적으로 본 세계상이 다소 변했을 뿐 다른 일은 전혀 없었다. 신의 자비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으로 기독교인(루터)이 예수에게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성경에 대한 생각과 공개적인 토론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517년 10월 31일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공개 조항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은 때 이르다.

---

11) Hanns Lilje: Luther. rororo. S. 67

그 해 9월 이미 형식과 제목에 따라 스콜라 신학과 맞지 않는 몇 가지 조항이 나온다. 그렇지만 이것도 스콜라 신학 즉 신의 자비에서 나오는 위로 정도였고 따라서 신학상의 방법론을 바꾸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의 편지의 강도를 보면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달콤하고도 힘에 넘친 내용 정도이다. 결정적인 것은 1517년 10월 31일이다. 신교도들은 이 날을 종교개혁의 기념일로 삼고 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루터는 세계사의 인물로 바뀌었다. 그가 비텐베르크 교회정문에 붙인 95개 조항의 신앙문제는 지축을 흔들기 시작한다. 이미 대량 인쇄가 가능하게 된 인쇄술의 발명은 종교개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초창기의 그런 유명세가 그 당시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다른 신학적 테제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1518년 하이델베르크의 공개서한 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가 쓴 조항들 중에 어떤 것은 이미 신학적 혁명의 조짐을 가진 것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루터로부터 야기된 새로운 신학상의 문제였던 것이다. 즉 바른 신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이고 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참신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과거 선배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던 것을 그가 정리한 것들이다.

우리가 루터에게서 그의 깨달음을 중요한 각성이라고 생각해보자. 어두운 수도원의 굴방체험이 곧 새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것이었고 신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역사 속에 바르게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참회의 변질, 면죄부제도, 이런 것들은 루터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가 많은 것이었다. 그 당시 루터는 목사이면서 영적인 사제로서 비텐베르크 교구에서 봉사하며 교수직도 수행했다. 그가 참회를 하거나 속죄할 때 자주 부딪히는 문제는 연옥의 벌 대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는 것이다. 그는 지옥의 불 대신 면죄부 발행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공공연한 로마 가톨릭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대학에서 신학적으로 규명해야 할 연구 중에 있는 하나의 문제로 여겼다. 공개적인 교회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는 사면이 갖는 효력에 대한 학문적 검증을 요구했다. 면죄부는 가톨릭 도그마에 규정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 면죄부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루터는 일련의 테제를 모아놓고 종래의 대학전통에 따라 이 문제를 학자들과 토론해 보았다. 신학자와 교회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라 라틴어로 토의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궁성과 맞붙어 있는 그곳 성당 교회에 자기의 주장을 내건 것

은 1517년, 모든 성인(聖人)의 날 대축제일 바로 전날이었다. 물론 루터가 비밀리에 숨어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주장을 대학에서도 공개 토론에 부쳤다. 그가 밟은 수순도 교회법에 따랐다. 그러나 두려워 아무도 이 공개토론회에 참여를 신청해 오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루터는 몇몇 친구들에게 자기가 쓴 글의 필사본을 보냈다.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그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친구들은 이 사본을 퍼뜨렸다. 그 글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전 독일에 번져나갔다.

알베르트 뒤러 못지 않은 화가 한 사람이 그 당시 아직 이름도 없던 승려 루터에게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징표로 목판화와 동판화의 몇 가지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분노한 민중의 폭풍 같은 열화는 루터를 숨 가쁘게 만들었다. 그는 그들이 단숨에 하늘을 향해 돌격하며 세상에 불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일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사건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또 더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그 만큼 더 세계사적 투쟁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만 갔다. 민중의 찬송가 소리는 그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만 같았다.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루터의 양심에서 나온 단 한 번의 행위 다시 말해 성경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시작한 단 한 번의 해석이 이렇게 번져나갔다. 이것은 그가 의도한 것도 아니요, 또 예상했던 바도 아니다. 그의 행위는 세계사의 흐름에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 Ⅵ. 맺는 말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루터는 자기의 신앙에 따라 독자적인 길을 밟았다. 신의 자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의 용서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이 그가 굴방 토굴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다. 이것은 원칙적인 것도 아니요, 면죄부 판매와 관련된 내용도 아니다. 그러나 그 깨우침에 따라 놀라울 만큼 명백하게 부당한 면죄부 판매 조치에 신학적 이론(異論)을 제기한 것이다. 후기 중세 교회의 총체적 구원론이 갖는 결정적 요소에 일침을 가한 것뿐이다. 그 핵심은 한 인간의 회생은 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서 그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혼의 거듭남은 신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보상받는 그 무엇이 아니다. 의(義) 와 회개( 悔改)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른 문제도 깊

이 파고들게 되었다. 성자숭배, 그리고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도 비판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숨을 죽이고 있던 민중이 뜻밖의 호응을하여 그 파장이 너무도 광범위하게 번져나갔다. 루터 공격의 화살이 역사적 비중을 띠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떠오르는 시대의 종교개혁으로 치닫게 되었다. 개인적 신앙체험이 세계사적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사실상 신학의 오묘한 경지로 나아가는 혁명적이고 실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후일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어 그 진의를 감정받고자 하는 민중을 향해 그는 그 면죄부 판매를 거부한 것이다. 그는 세계사적 사건을 획책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했다. 그는 평생토록 외면적 권력에 상당한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는 잔인한 권력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천재였고 실제로 그랬다. 그의 모든 행위는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신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전부였다. 그가 진리인식의 지평에 맞추어 살아감으로써 그 자신 위대한 역사적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요약하면 한 개인의 신앙체험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 하겠다.

## Bibliographie

Benzing, Josef: Lutherblibliographie. Baden-Baden. 1966
Hermann, Horst: Martin Luther. München. 1983
Junghans, Helmar: Wittenberg als Lutherstadt. Berlin. 1982
Kantenbach, Friedrich Wilhelm: Die Reformation in Deutschland und Europa. Gütersloh. 1965
Kind, Helmut: Die Lutherdrucke des 16. Jh. und Lutherhandschriften. Göttingen. 1967
Lilje, Hans: Luther. rororo. 22. Auflage. 2000
Mayor, Hans: Martin Luther Leben und Glaube. Gütersloh. 1982
Ritter, Gerhard: Die Neugestaltung Europas in 16. Jh. Berlin. 1950
Simon, Edith: Time-Life LDT. (한국일보. 1991)
Wohlfeil, Rainer: Einführung in die Geschichte der dt. Reformation. München. 1982
Zweig, Stefan: Triumph und Tragik des Erasmus. Fischer. 1981
이영수: 『루터의 신앙과 투쟁』 이문사. 2002

Zusammenfassung

## Die Urkraft der Reformation Luthers

Young-Su Lee(Dong-A Uni.)

In meiner vorliegenden Arbeit habe ich versucht, was eigentlich bei Luther die Urkraft der 16. Jh. Reformation Europas ist.
Das 16. Jahrhundert zur neuen Geschichte ist mehr als die Reformation, und die Reformation ist mehr als Martin Luther.
Woran liegt es, daß seine Gestalt, sogar seine Erleuchtung so überragend im Vordergrund steht?
Der Gerechte soll aus Glauben leben.
Gerechtigkeit Gottes wird offenbart in dem, was geschrieben steht: der Gerechte wird aus Glauben leben.
Da erschien ihm von da an die Schrift in einem ganz anderen Licht.
Es muß vielleicht im Frühjahr 1513 gewesen sein. Dies ist die Geburtsstunde der Reformation. Ohne das Turmerlebnis wäre der gesamte Aufbruch der neuen Zeit aus dem Ringen von Luther um Gott geboren.

키워드 : 구원 Rettung,
은총 Gnade,
메타노이아 Metanoia,
깨달음 Erwachen